

<주제 발표>

#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영향<sup>1)</sup>

김승욱<sup>2)</sup>

## 목차

- I. 서론
- II.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장
- III. 인적자본의 형성과 한국 기독교의 역할
- IV. 신제도학파의 견해와 한국 경제
- V. 결론

### I. 서론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영향”이란 주제는 먼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두 번째로 이러한 발전과정에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하는 것을 다루려는 것이다.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최근의 한류 열풍, 그리고 월드컵 4강, 동계올림픽 5위, UN 사무총장 배출, G20 개최 등으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이제 교계도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올해는 한일합방이 된지 100년이 되고, 6.25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이다. 식민지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이 시점에 한국 사회의 발전에 교회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사회에 대한 연구 방향은 주로 사회변혁을 위해서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또는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가 등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번 학회의 주제와 같이 한국 사회발전을 긍정하고, 기독교가 이에 어떻게 기여했는가하는 주제의 연구는 별로 없었다. 지난 25년 동안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의 학회발표 논문들은 총 343편으로, 인문학 분야에서 104편, 사회과학분야에서 160편, 자연과학분야에서 75편,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 경제와 경영 분야를 다룬 85편의 논문 제목을 모두 확인해 보았으니 이러한 주제로 쓰인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sup>3)</sup>

1) 이 논문은 2010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기초발표 논문임. 아직 완성된 논문이 아니니 인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중앙대 교수, 경제사회학회 회장,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3) 이 숫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만 확인한 것이다.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 <신앙과 학문>이나 <통합연구>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두 학술지까지 계산하면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제외했다. 물론 학회에서 발표되지 않고 학술지에 바로 실린 것도 있지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회에서 발표되고 이 두 학술지에 실리지 않았거나 다른 학술지에 실린 것도 있을 것이다. (사)기독교세계관

그리고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2005)에서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3년 동안 20명의 연구진이 연구하여 발표한 38편의 논문이 있다. 이 연구 주제가 이번 학회의 주제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이번 학회 주제와 달리, 한신대(2005) 연구는 ‘변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신대(2005) 연구는 정치변동, 사회변동, 문화 변동으로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화기와 일제 식민통치기에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그 중에 2부 “사회변동”에서 경제와 관련된 논문은 김재성(2005)의 “도시산업선교가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과 이동희(2005)의 “기독교 정신과 한국의 산업화” 두 편 밖에 없다. 산업화 과정을 다룬 유일한 논문인 이동희(2005)의 연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가 한국의 산업화에 미친 영향이고, 둘째는 기독교가 산업화로 인해서 받은 영향이다. 우리 학회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하에 기독교가 벌인 물산장려운동과 기독교 자본의 성격에 대해 약간 언급하는데 불과하고,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받은 기복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독교 학계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인색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언급을 자제했다. 주일 설교단에서 그리고 각 집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했다는 선언은 자주 선포되었고, 학술적이지 않은 글에서는 많이 언급되었지만, 이것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 연구의 전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먼저 한국 사회가 발전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가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200만부나 팔렸다고 하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집필한 송건호, 강만길, 박현채, 최장집, 정해구, 김남식 등 지식인들이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는 측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식민지 수탈론’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시각에 의하면 한국은 일제 청산을 아직 못해서 정통성이 결여된 나라이며, 독재에 아부하며 독점 재벌이 사회를 지배하고, 곳곳에서 기회주의가 승리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으로도 물질주의가 지배하며,

---

학술동역회의 홈페이지에는 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공개하고 있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09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기준으로 인문학(104편)의 경우 신학/철학/세계관: 69편, 심리학: 4편, 역사학: 8편, 문학: 9편, 문화: 14편이다. 사회과학(160편)의 경우 경제/경영: 85편, 정치/행정: 24편, 교육: 38편, 법학: 5편, 사회복지: 8편이었다. 자연과학(75) 분야의 경우 이과(과학/수학): 30편, 공학(컴퓨터/환경): 28편, 간호학/의학/약학: 17편이었다. 예술(4) 분야가 가장 취약했는데, 음악: 2편, 미술: 2편에 불과했다.

4) 이동희(2005)는 일제하 심령대부흥운동은 “신앙의 순수성과 경건성이라고 하는 영적 열광주의의 모습”을 띠었으며, “산업화 시기의 심령운동은 “기복” 또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경제적 성취 또는 사회적 성취라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도 기복적인 열광주의의 모습을 띠고 전개되었다(548).”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생존동기가 합리화되고 이로 인해 물질축복과 현세복락을 강조하는 기복주의적 신앙부흥운동이 물량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주장한다(550).

사회 곳곳에 부정의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5)</sup>

반면에 이를 비판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의 저자인 박지향, 김철, 김일영, 이영훈(2006) 등은 일제시대를 “식민지 근대화론”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해방 이후 55년간 이룩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식민지 시대는 ‘조선민사령’으로 일본의 민법이 이식되어 소유권이 확립되고, 계약자유 원칙이 세워졌으며, 1912년의 ‘조선부동산등기령’으로 사유재산제도가 확립이 되고, 조선과 일본이 단일 시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식민지 시기에도 조선에서 경제가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인간관과 사회원리의 새로운 문명이 이식되어 전통과 충돌하고 접합하면서 나름의 형태로 정착되는 과정(이영훈, 2007: 95)”으로써 근대적 성장의 기초를 놓은 시기라고 본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자들은 한국은 식민지, 내전,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건국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으며,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과거에 비민주적이고 정경유착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투명한 사회가 되었다는 본다. 이들은 지난 반 세기동안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6)</sup>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이러한 견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 사회가 발전했는가를 논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가 **정신적으로는**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발전을 했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발전에 한국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사회라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복지 등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한 논문에서 모든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경제발전에 교회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교회의 영향이란 지역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가 미친 영향 또는 기독교 학교를 세운 선교사나 기독교인들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 연구의 목적

이번 학회의 주제는 한국 정부 수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 등 사회발전을 이룩하는데 교회 또는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수립과정과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경제학의 영역보다는 정치학의 영역에 속한다. 반면에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경제학의 연구 분야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주로 경제

5)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6권의 서적들은 “마오의 신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비판한 다음,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대어 민족통일을 전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이영훈, 2007: 26).” 특히 5권의 총론을 쓴 김남식은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6) 두 권으로 구성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2006)>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비판하는 논문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를 정리한 이영훈(2007)의 <대한민국 이야기>에서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기초한 민족주의 시각을 비판한다. 양반과 천민이 공존했던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비로소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민족’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를 강조한다. ‘민족주의’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인종청소라는 비 인륜적인 범죄인 ‘부족주의’와 같은 개념이고, 민족이라는 미명하에 히틀러 등 많은 악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족’은 자유, 평등, 박애 등과 같은 이념에 비해서 초국가적인 가치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반면에 국가라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였음을 주장한다.

성장에 미친 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 이 연구의 의의

최근 한국의 사회발전이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에서(이영훈, 2007: 197) 국가 건설에 성공한 나라는 4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도 경제성장에 성공해 국민소득이 만 불을 넘는 나라는 선진국을 포함해서 50개 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1993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경제 기적이라고 묘사했다. 그 이유는 경제만 성장 한 것이 아니라 분배도 제3세계 수준에서는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 한국은 정권이 두 차례에 걸쳐서 평화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바뀌면서 민주화도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1997년의 아시아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발전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발전도 놀라운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계 선교에서도 눈부신 공헌을 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제와 공산당에 항거하며 순교한 선현들의 순교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셨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광신자의 착각 정도로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보교단 측의 기독교인들은 한세대(2005)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성장은 똑똑한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이룩했고, 뛰어난 정치 지도자와 경제인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교회나 기독교와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교회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MBC는 <뉴스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방영하였다.<sup>7)</sup> 그리하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등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비리가 세간의 비난거리가 되었고, 인터넷 상에 안티 기독교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인구 중에 종교인구는 늘어나고, 다른 종파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의 신자수가 줄어들면서 무기력한 교인의 패배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세계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교회의 성장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가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정작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감히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이 연구가 이러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떠한 형태로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7) MBC <뉴스 후> 프로그램은 2008년 1월 26일, 2월 2일, 16일 등 3회의 방송을 통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 한국교회 시리즈를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부성직자들의 호화 생활 및 교회의 면세정책에 대한 이슈에 집중하며, 특히 한국교회의 부패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일부 성직자들과 특정 대형교회에 국한된 문제점을 개신교 전체의 문제점인양 일반화시켜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해당 교회에서는 MBC에 항의 방문도 하는 등 교계와 갈등을 빚었다.

다음 제II절에서는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을 교육과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제III절에서는 교육에 한국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제IV절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에 시장 경제 체도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용하였으며 이에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역사해석에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한국 경제 발전과 교회의 성장

이 절에서는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장을 설명한다. ‘발전’과 ‘성장’을 구분하는데, 성장(growth)이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 발전(development)이란 양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국내총생산(GDP)나 일인당국민소득(GNI)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은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환경이 악화되지 않으며 사회복지가 향상되는 등 질적으로도 경제가 개선될 때 비로소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의 모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발전이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장보다는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질적인 개선의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국 사회가 수량적인 척도로는 개선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측과 진보측 사이에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것도 이러한 점과 관련이 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는 발전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는 증가했지만, 과연 일제 강점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보다 질적으로 교인들의 신앙이 더 좋아졌고, 교회의 사랑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교회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교회성장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모습을 개관하고, 이어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 지난 100년간 한국 경제 성장

불과 3세대 전에 가난해서 주권을 빼앗겼던 나라가 이제 선진국 진입을 운운할 정도가 되었다. 정체성이나 의식 수준 등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이론이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부정하는 사람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

김낙년(2010: 72)의 연구에 의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1-2007년간 약 100년간 남한의 GDP는 82.6배, 인구는 4.4배 증가해서 지난 100년 동안 GDP는 연평균 4.7%, 그리고 인구는 1.4%의 성장을 보였다. 그 결과 1인당 GDP는 18.9배가 증가했으며, 100년 동안 연평균 3.1%로 성장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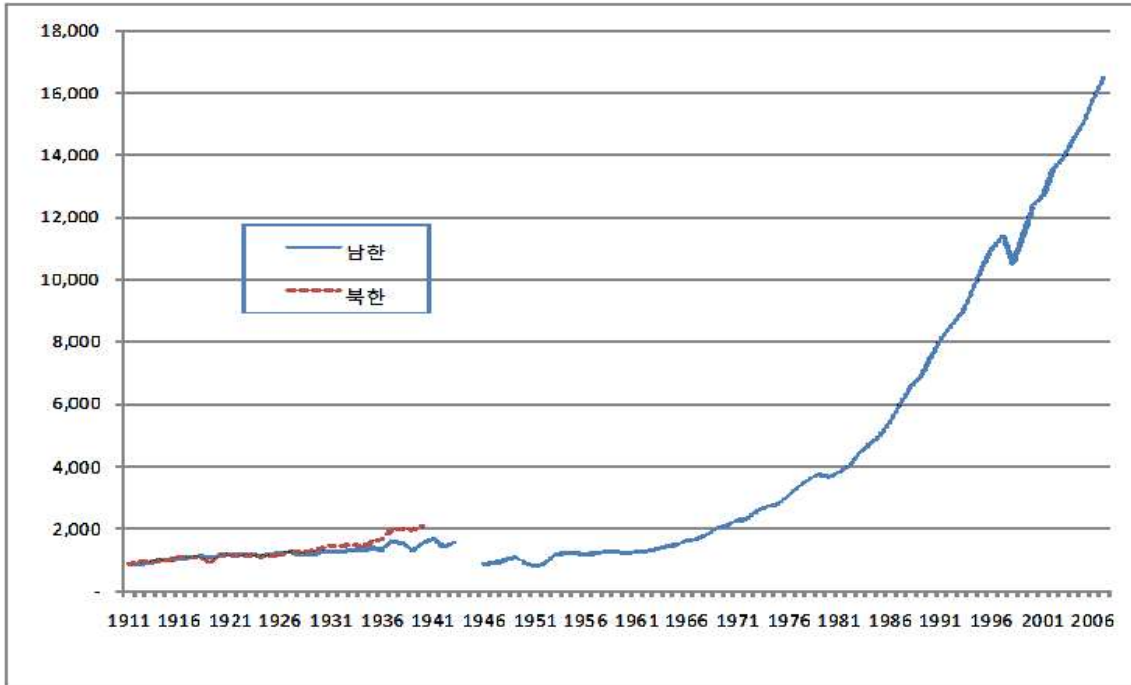


그림 1 일인당 GDP의 추이 (1911-2007)  
(2000년 불변가격, 천 원)

출처: 김낙년(2010)

지난 100년 동안 성장기가 있었고, 혼란과 쇠퇴기가 있었다.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1970년대 이전을 확대해서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중일전쟁으로 전시통제기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일제 강점기(1911-1940)에는 경제가 계속 성장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이 시기에 개선되어, 남한의 경우 1인당 GDP가 1.8배, 북한은 2.4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시 통제기(1941-1945)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어 1946년에 이르러서는 1941년의 거의 절반수준, 즉 1911년 수준으로 경제가 추락했다. 태평양 전쟁 기간인 1944-45년 기간 중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다. 해방 이후에는 6.25 전쟁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었으나 평균적으로 보아 정체 또는 완만하게 상승했으며, 1960년 이후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여 2007년까지 1인당 GDP는 13.4배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5.7%였다.

8) 삶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이를 평가하는 지수로 일인당 소비 칼로리, 영아 사망률, 의사 수, 복지비 지출, 학교 수, 교사 수, 평균 학력, 고등교육자 비율, 국민의식 수준, 민주화, 범죄율, 변호사 수, 신장 등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지표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GDP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은 1인당소득과 비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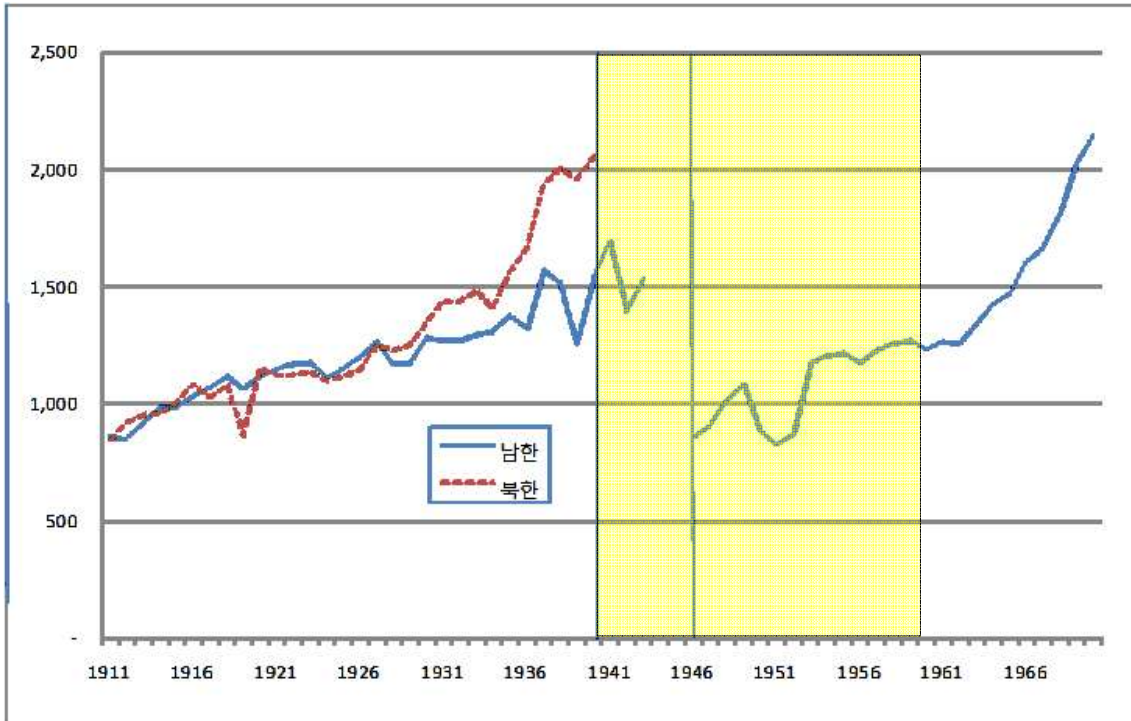


그림 2 1인당 GDP의 추이 (1911-1970)  
(2000년 불변가격, 천 원)

출처: 김낙년(2010)

고도 성장기의 경제성장을 <그림 3>을 통해 살펴보면 60년대 수출주도로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연평균 8%가 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며, 80년대에는 안정화정책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고, 80년대 후반에는 민주화, 그리고 90년대 초에는 경제개방과 자율화 과정을 지내왔다.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서 90년대 말에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서 부실기업들이 정리되고, 부채의존형 경제체제가 개선되고,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다시 10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한국은 이제 GDP 면에서 약 2만 달러로 세계 14위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GDP의 양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의 8억 인구가 생산하는 양보다 많다. 한국의 수출은 세계 9위 수준이고, 무역규모는 아프리카 전체보다 많고, 중남미와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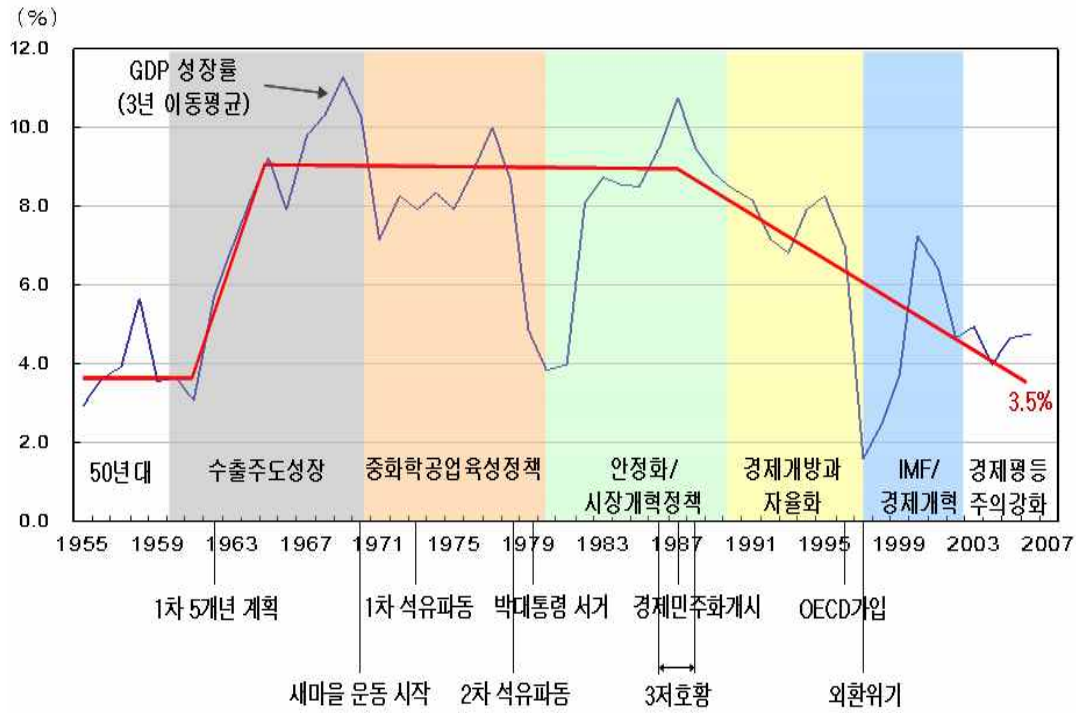


그림 3 지난 60년 한국경제 발전사

출처: 좌승희



그림 4 통계로 다시 그린 세계지도 : 국민총소득(GNI)

자료: Daniel Dorling의 2인(2009), 리얼아틀라스 리얼월드



통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력지수<sup>9)</sup>는 2010년의 경우 1.86으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 11위였다. 2020년이 되면 한국 국력지수는 2.22로 브라질(2.11)·러시아(1.9)·이탈리아(1.81)를 웃돌며 영국 다음으로 강해져 8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sup>10)</sup>

또한 한국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1987년에 한국수출입은행에 3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만들었으며,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면서 원조공여국이 되었다. 2005년에 한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지출이 7억5,200만 달러로 처음으로 국민총소득(GNI)의 0.1%를 넘어

‘신흥원조국(emerging donor)’의 지위를 얻었고, 2008년에는 OECD 회원국 중에 19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받은 원조 액수는 127억 달러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 달러(70조원) 정도 되는데,<sup>11)</sup> 이에 비하면 아직 우리가 공여한 국제원조의 규모는 2009년 말 현재까지 48억 달러로 아직 규모면에서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이제 한국은 '개발원조 위원회'(DAC) 정식 멤버로 가입하여, ‘원조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여 골드만삭스는 지난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No. 188)에서는 한국이 통일된다면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고급 인력과 광물 자원이 결합하면, 2050년경에는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는 경제규모를 가질 것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지역은 9만6천 달러, 북한 지역이 7만 달러, 평균 8만8천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국제기관들이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ECD, FS B,<sup>12)</sup> IMF, FTSE<sup>13)</sup> 등의 기준에서는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MSCI,<sup>14)</sup> WGBI<sup>15)</sup> 등에서는 아직 개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지금까지 선진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은 약 2만 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48위를 기록하고 있다. 1

표 1 국가별 국력지수 순위

	2010년 국력지수	순위		2020년 국력지수
미국	23.07	1	미국	21.35
중국	11.75	2	중국	13.48
인도	7.06	3	인도	7.55
일본	6.11	4	일본	5.33
독일	4.19	5	독일	4.17
프랑스	3.23	6	프랑스	2.99
영국	2.79	7	영국	2.62
브라질	2.17	8	한국	2.22
이탈리아	2.16	9	브라질	2.11
러시아	2.11	10	러시아	1.9
한국	1.86	11	이탈리아	1.81

9) 국력지수란 국내총생산(GDP), 인구, 재래식군사력, 행군사력 등을 국가별로 조사한 뒤, 전세계 국력을 100으로 놓고,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10) 출처: 조선일보·현대경제연구 공동기획, <10년 후 한국>, 2010.03.11.

11) 한국은 유·무상 합해 미국·일본(전후 보상금)으로부터 각각 55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받았고, 한국민간구조 계획(CRIK), 유엔한국재건단(UNKRA) 등 유엔기구들로부터도 총 1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지난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수원국의 지위를 졸업했다.

12)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1998에 세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이 2009년에 확대·개편된 것으로 현재 2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에 회원국이 되었다.

13) FTSE(Financial Times Security Exchange)는 영국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FTSE그룹이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써, 모건스탠리 MSCI 지수와 함께 세계 2대 지수로 평가받고 있다.

14)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지수는 모건 스탠리가 평가하는 지수로, 한국은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기 중이다.

15)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Salomon Smith Barney사가 평가하는 세계 국제 지수이다.

인당 소득 기준으로는 아직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한국이 자랑하는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 면으로 볼 때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대학생 비율은 1위, 젊은이 가운데 대학 졸업자 비율은 40%로 세계 3위이다. 미국 유학생의 숫자는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 나라의 발전의 정도를 주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행복지수, 주관적 만족도 등도 사용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 레이야드(Layard, 2005)는 유엔의 의뢰를 받아 실

시한 연구에서도 방글라데시가 가장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연구에서 한국은 54개국 가운데 23위에 그쳤다. 그리고 영국의 신경재재단(NEF, 2009)은 2009년에 삶의 만족도, 기대 평균 수명, 생존에 필요한 면적, 에너지 소비량 등을 종합하여 143개국의 행복지수 순위(HPI)를 발표 했는데, 이 연구에서 1위에는 코스타리코로 발표되었는데, 미국은 114위, 한국은 44.5점으로 68위였다(김승욱, 2009).”

#### 한국 교회의 성장과 정체

한국경제 압축 성장 시기에 한국교회도 함께 급성장 했다. 종교별 인구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도에 648만9천명으로 총인구의 16.1%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1995년에는 이 비중이 19.7%(876만 명)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성장하던 기간에 기독교인의 수도 늘어났다.<sup>16)</sup>

그런데 경제계에서 재벌이 등장하듯이, 교계에서는 대형교회가 등장했다. 한 창업가가 기업을 재벌로 키우는 모습과 한 젊은 목사가 개척교회를 대형 교회로 키워 가는 모습이 유사했다. 강력한 리더십, 밤낮을 안 가리고 뛰는 초인적 정력 등이 공통점으로 거론되었고, 나아가 상속까지 비난을 받았다.<sup>17)</sup>

게다가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표 2> “한국의 종교별 인구 구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독교인의 숫자는 2005년에 861만6천여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14만 4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계에 충격을 주었다.<sup>18)</sup> 게다가 2005년에 우리나라의 총 종교 인구는 2,497만여 명으로 1995년 2,259만 7천명에 비해 10.5%나 크게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5년에는 전체 인구의 50.7%가 종교인구인 반면에, 2005년에는 이 비율이 53.1%로 늘어 2.4%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총 종교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 종교 모두 신자수가 늘어났다.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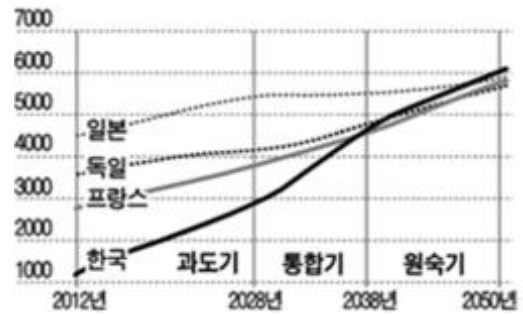


그림 5 30-40년 후 한국 GDP 전망  
(단위: 10억달러, 2007년 기준)

자료: GS Global ECS Research

16) 한국의 교회수는 2004년 현재 전화번호부 기준 5만 3천개였으며, 2010년 현재 대략 6만개 정도로 예상됨.  
 17) 김승욱(2000), “교회 안에 들어온 자본주의 세계관,” 『목회와 신학』 2000년 10월호 특집. 신광은(2009), <메가처치 논박>, 정연.  
 18) 2010년도 통계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표 2 한국의 종파별 인구 구성  
(1990, 1995, 2005년)

(단위: 천명, %)

	1990		1995		2005		증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율
총인구	40,419	100	44,554	100	47,041	100	2,488	5.6
종교있음	17,203	42.6	22,598	50.7	24,971	53.1	2,373	10.5
불교	8,059	19.9	10,321	23.2	10,726	22.8	405	3.9
개신교	6,489	16.1	8,760	19.7	8,616	18.3	-144	-1.6
천주교	1,865	4.6	2,951	6.6	5,146	10.9	2,195	74.4
유교	483	1.2	211	0.5	105	0.2	-106	-50.4
원불교	92	0.2	87	0.2	130	0.3	43	49.6
기타	175	0.4	268	0.6	247	0.5	-21	-7.7
종교없음	23,216	57.4	21,953	49.3	22,070	46.9	117	0.5

출처: 통계청

주교는 1995년 보다 무려 219만 5천명이 증가했고, 불교의 경우 40만 5천명, 원불교의 경우 4만 4천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모든 종파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14만 명이나 감소했다. 천주교 인구가 219만 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기독교의 인구비중은 18%로 하락한 반면에 천주교는 11%로 증가했다. 노방전도, 전도 폭발 등 요란을 떠는 기독교는 정작 신자 수가 줄어들고, 비교적 조용한 천주교의 신자 수는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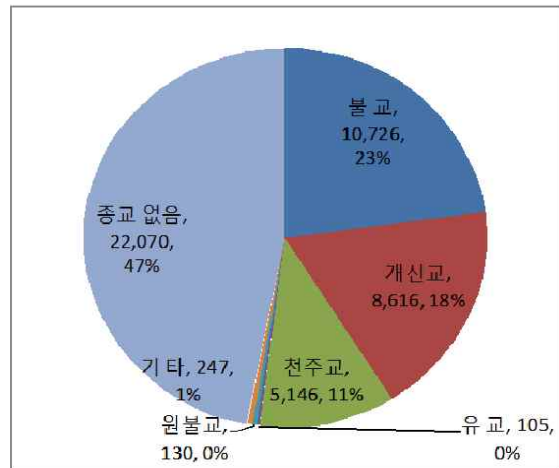


그림 6 종파별 인구 (2005년)

출처: 통계청

##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

최근에 세계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한국이 불과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로 전락했고, 독립한지 65년 밖에 안 되었고, 동족간의 내전인 6.25 한국전쟁을 겪어 그나마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모든 공업시설이 파괴되었으며, 군사 독재까지 겪었고, 국민 소득의 10% 정도를 국방비에 지출해야 하는 휴전상황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연일 혼란한 사회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일본, 유럽과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조선, LCD, 가전제품 등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삼성, 현대, LG, SK 등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했다는 사실에 세계는 놀라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가장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최우수 자동차에 선정되고,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유럽차 점유율 7.3%를 2009년에 추월하였다. 삼성전자는 가전의 왕좌를 차지했던 소니를 추월했다. 게다가 드라마와 영화계에서 한류 바람이 불고 월드컵 4강, 프로 골프, 동계와 하계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에 세계는 놀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학생을 보낸 나라가 200개국을 넘었다. 또한 미국에서도 최고의 MBA를 자랑하는 와튼·하버드·MIT 등 톱 MBA 스쿨들이 “한국 기업의 경이로운 성공과 한국 국민의 IMF 극복 사례는 살아 움직이는 강의 재료”라고 하면서 삼성반도체의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하기 위해서 현장 학습을 위해 한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지역의 현장 학습의 대상은 일본이었으나 이제는 한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 한국의 경제성장의 요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 주제를 다루려면 먼저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그러한 요인에 교회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이 중시되던 시대에는 토지자원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었으나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자본축적이 강조되었다.<sup>19)</sup> 특히 16세기 이후 상업이 발전하면서 시작된 중상주의 시대에는 금 등 귀금속이 부의 본질이라고 인식하는 중금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아담 스미스 이후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비판을 받고, 부의 본질이 생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분업 등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되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확대가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는 마르크스도 동의하였다.

그 이후에 주류경제학자들은 올바른 경제이론을 적용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경제사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경제이론을 정교하게 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어떤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는 반면

19) 최근에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고,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더 경제적으로 못 사는 현상으로 인해서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원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로스토우, 거센크론 등에 의해서 1960년대 이후에 경제발전론이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이들에 의해서 경제성장의 원인으로써 노동과 인구증가율이 강조되기도 하고,<sup>20)</sup> 자본축적, 투자, 저축률 등이 강조되기도 하고,<sup>21)</sup> 또한 슈페터 등에 의해서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외생변수로 인식했던 기술진보나 인구증가 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내생적 성장이론이 등장하면서 투자규모, 인적자본의 스톡을 증가시키는 교육 등이 기술진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양분하였지만, 최근에 지식, 교육, 창의성, 인간관계 등 네트워크 등이 강조되면서 인간의 육체노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노동이라는 용어 대신 인적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즉 인간에게 투입된 교육투자 등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종의 자본과 유사하다는 인식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자본을 인적자본과 비인적자본(금융자본과 실물자본 등)으로 양분하였다. 인적자본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한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적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9년에 시카고 대학의 슈츠(T. W. Schultz)와 1992년에 베커(Gary Becker)가 인적자본 연구의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육, 훈련 등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 신제도학과의 등장과 제도의 중요성

마르크스는 제도를 강조한 반면에, 신고전학과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성립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물리학과 유사한 방법론으로 경제현상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에 도전하여 경제제도를 중시여기는 신제도주의 경제학파가 등장하여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제도를 중시하는 풍조가 경제학계에 불고 있는 정도는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수가 제도에 대한 연구에 기여를 한 학자들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은 하이에크(1974년)와 허버트 사이먼(1978) 정도에 불과했고, 1980년대에도 조지 스티글러(1982)와 제임스 부케넌(1986) 정도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널드 코스(1991), 게리 베커(1992), 더글러스 노스(1993), 존 하사니, 존 내시, 라인하르트 젤렌(1994), 제임스 멀리스와 윌리엄 비크리(1996)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2000년대에도 역시 한 해 걸러 한 번씩 제도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한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고 있다. 즉 2001년에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조지 에커로프, 마이클 스펜서 등이 비대칭 정보의 시장이론을 정립한 공으로 노벨상을 수상했고, 2002년에는 대니얼 커너먼과 버넌 스미스 등이 행동 경제학과 실험경제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5년에는 게임이론을 정치·외교·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주요 경제사회 현상들을 설명한 공로로 로버트 오먼과

20) 리카르도 등 고전학과 성장이론과 소로우등 신고전학과 성장이론.

21) 케인즈학과 성장이론인 헤로드-도마 모형.

토머스 셸링이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경제주체의 행동방식이 경제적 인센티브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여 제도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은 레오니르 후르비치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2009년에는 제도경제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래비용이론의 대가인 윌리엄슨과 오스트롬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와 같이 최근 경제학계에서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교육과 제도의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 원인을 요약하고,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제도발전에 한국의 기독교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인적자본의 형성과 한국 기독교의 역할

#### 한국의 경제성장과 교육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인당 국토면적은 세계에서 3번째로 좁고, 석유는 전혀 나지 않고, 부존자원도 시멘트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열악한 상태이지만,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교육수준이 한국의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 유교와 교육

이렇게 한국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무보다 문을 숭상하는 유교전통과 과거시험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던 제도 등으로 인해서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막스 베버(M.Weber)는 <유교와 도교>에서 유교나 도교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꼽았는데, 일본에 뒤를 이어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유교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일어나면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또는 ‘유교 자본주의’(Confucian Capitalism)<sup>22)</sup>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김승욱, 아시아적 가치논쟁과 경제성장).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서도 자녀교육을 위

22) 유석춘은 ‘유교 자본주의’는 유교문화권의 동아시아 국가가 서구의 ‘개신교 자본주의’와는 다른 모습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은 서구에서 개신교가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과정과 전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한다. “서구는 중세의 지방분권적인 지배질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중세의 중앙집권적인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유교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였다. 따라서 서구의 자본주의는 ‘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는 ‘위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두 자본주의는 발생의 기원뿐만이 아니라 발전의 과정도 대조적이다. 서구에서는 귀족과 대항하며 성장하던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마침내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지배계급으로 성장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노동자 계급을 포섭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자생력이 없는 ‘부르주아’를 국가관료가 경제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도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이룩하였고 노동자 집단 역시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에 두고 통제 및 보호하고 있다. 또한 서구에서는 부르주아적 집단의 독립적인 ‘경제적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자본의 축적수단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유교 자본주의에서는 지배세력과의 ‘정치적 유착’이 가장 중요한 자본의 축적수단이었다.”(유석춘, 1997b).

한 교육비 지출을 우선적으로 했다. 15세 이상 근로인구에서 각 교육수준이 차지하는 비율과 평균교육연수를 나타내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평균 교육연수는 1960년에는 OECD회원국의 평균수치의 절반에 그쳤으나 1990년에는 그 격차를 크게 줄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60의 4.25년에서 1990년에는 9.94년으로 OECD평균수준 9.02년을 크게 상회하였다. 같은 기간 대만과 말레이시아 역시 교육연수가 두 배 이상 신장되었다(김승욱, 2006).<sup>23)</sup>”

표 3 교육수준의 국가별 비교  
(15세 이상 근로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국 가	연 도	교 육 수 준				
		무학(無學)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균교육기간
OECD가입국	1960	5.0	57.2	31.0	6.8	7.05
	1990	4.5	32.6	41.3	21.6	9.02
개도국	1960	64.0	28.9	6.2	0.8	2.05
	1990	39.8	34.5	20.8	4.8	4.43
인도네시아	1960	68.0	28.6	3.4	0.1	1.55
	1990	19.7	63.1	15.5	1.7	4.59
한국	1960	43.8	36.2	17.4	2.6	4.25
	1990	8.0	16.1	61.9	13.9	9.94
말레이시아	1960	49.7	38.6	10.1	1.5	2.28
	1990	19.4	45.4	31.8	3.3	6.04
필리핀	1960	25.6	53.6	14.5	6.3	4.24
	1990	7.7	46.9	25.3	20.1	6.93
싱가폴	1960	46.2	21.3	32.5	0.0	4.33
	1990	19.0	41.9	34.8	4.3	6.08
대만	1960	37.3	42.6	16.3	3.8	3.87
	1990	12.4	29.6	43.8	14.2	7.98
태국	1960	36.9	55.3	7.0	0.7	4.30
	1990	13.3	69.9	9.6	7.3	5.75

資料 : Barro, R. and Lee Jong Wha, 1996, 218-33.

### 기독교와 근대적 교육의 시작

이렇게 한국에서 교육수준이 향상된 것은 유교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근대교육의 도입에는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크다. 한국에서의 근대 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885년에 배재학당을 열어 우리나라 신교육의 개척자적 역할을 한 북감리회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sup>24)</sup> 경신학교(敎新學校 1886년)의 전신인 언더우드 학당과 ‘연합기독교대

23) Barro, R. and Lee Jong Wha, 1996, 218-33.

학'(Union Christian College,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또한 연세대학교로 발전)을 설립한 북장로회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선교사,<sup>25)</sup>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 전신, 1886년)을 설립한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 부인 스크랜턴(M.F. Scranton), 제중원 사태에 정동여학당(貞洞女學堂)이란 이름으로 정신 여학교를 설립한 미국 북장로교의 여의사이자 선교사인 엘레스(1887), 숭실학교를 설립(1897년)한 베어드(W. M. Baird) 선교사 등 한국의 근대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표 4 부흥운동 기간 평양 지역 학교의 증가

	1902	1905	1907
학 교 수	35	62	106
교 사	35	64	121
학 생	592	1,802	2,583
자립하는 학교 수	30	60	106

출처: 박용규(2007: 471)

특히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미션 스쿨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양대부흥 기간동안 학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부흥운동을 지나면서 불과 7년 만에 초등학교는 무려 10배가 증가했다(박용규, 2007: 468).

박용규(2007: 499-500)는 부흥운동 당시에 조선인들이 얼마나 배움에 굶주렸는가를 1907년 11월 에디워드 밀러가 코리아 미션 필드에 기고한 “배움에 대한 굶주림(Hungry to Learn)”를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신앙과 도덕 교육을 시켜 줄 것과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훈련된 교사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이 일과 관련하여 한 가지 고무적인 특징은 한국인 스스로 학교 운영비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금을 모금할 수 있든 없든 그들은 학교 설립을 원하고 있다. 지금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이다.

이러한 조선인 기독교인들의 갈망에 부응하기 위해 선교사들은 조선에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을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선교사들은 복음전파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복

24) 1985년에 입국한 북감리회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는 1885년 8월 3일에 스크랜턴 의사로부터 빌린 집의 방 두 칸 벽을 헐어 교실을 만들어 근대학교를 처음 시작하였다. 이에 1886년 6월 8일에 고종은 배계학당(培濟學堂)이라는 교명과 액(額)을 내리었다. 우리나라 신교육의 개척자적 역할

25) 두 번째 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는 미국 북장로회 파송 선교사로 1885년 4월에 입국하여 3일 만에 알렌의사가 개설한 광혜원에서 고아원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공동 합숙생활을 하게 하면서, ‘언더우드 학당(學堂)’이라는 교명을 붙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고아원 이요, 학교로는 두 번째이다. 이 언더우드 학당이 종로구 혜화동에 자리잡고 있는 경신학교(敬新學校 1886년)의 전신이다.



음화를 이루고, 성숙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06년 10월에는 1,500명이나 되는 북감리교회 소속 교사들이 모임을 가지기도 했고, 1907년 1월 서울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교사 대회(a Teacher's Convention)가 열리기도 했다(박용규, 2007: 501).

이러한 선교사들의 도움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열정에 힘입어, 한일합방 직전인 1910년 2월까지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는 장로교가 세운 학교가 501개,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가 158개, 성공회가 4개, 종파미상 84개, 각파 합동 1개, 천주교가 46교로서 신구교회가 세운 학교 수가 모두 796교였다. 이와 같이 개신교 특히 그 중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조선에서 사립학교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 하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신앙에 의지해서 독립을 추구했으며, 독립의 방법으로 교육을 강조했다. 3.1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를 대표한 남강 이승훈(1864-1930)은 오산학교를 세웠다. 그는 자수성가한 실업가로서 신교육 열심가로 기록되어 있다.<sup>26)</sup> 고당 조만식은 1915-19동안 이 오산학교의 교장을 맡아, 주기철, 김동진, 한경직, 김홍일 등 한국의 지도자를 배출했다.<sup>27)</sup> 조만식은 YMCA 총무를 맡으면서 청년을 깨우는 일에 주력했다. 후에 산정현 교회 장로를 역임하면서(1922)<sup>28)</sup>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자신이 키운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를 산정현교회에 담임으로 모셔와 격려하여 신사참배에 반대투쟁을 하도록 뒷받침하고 순교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이만열, 2007).

홍사단을 창설한 도산 안창호(1878-1938)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으며, 고향인 평안남도 상서군 송만리에 점진학교, 그리고 후에 대성학교를 세워 새 교육에 힘쓰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일심으로 전도를 하고 친히 설교를 했다. 그는 18세에 언더우드가 세운 구세학당에서 3년간 수학하고 이 학교의 조교가 되었는데, 이 무렵 입교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9)</sup> 안창호는 도산의 전기를 쓴 이

26) 그는 후에 장로가 되어 그의 나이 53세에 마포삼열이 창설한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남강 이승훈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만열(2007: 54. 제II장) 참고.

27) 조만식은 술과 환락으로 장사에 실패하고 1905년에 숭실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40년간 술 담배를 끊었다.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 동경 세이소쿠 영어학교에서 3년간 영어를 전공. 간디의 <자서전>을 읽고 훗날 한국의 간디로 추앙받게 되었다. 후에 명치대학 법학부에 진학. 귀국후 오산학교와 승인상업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오산학교 교장이 되었다. 이 후 1921년에 평양 YMCA 창립이 되어 평양교계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모든 지도자들과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800명이 모였는데, 이때 총무에 조만식이 선임되었다. 초대 회장에 김득수, 부회장에 김동원이었다.

28) 고당 조만식은 1922년 산정현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받았다. 산정현교회는 장대현교회로부터 1905년에 분립했으며, 한승곤, 안봉주, 강규찬, 송찬근, 주기철 목사가 시무했으며 한때 박형룡 목사가 부목사로 봉사한 일도 있다.

29) 후에 그는 언더우드 등의 알선으로 190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엔젤레스에서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신학 강습소에서 영어와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다시 1907년에 29세의 나이로 귀국하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독립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해서 이승훈, 전덕기, 김구 등과 활동했다. 그리고 대성학교를 세워 기독교 신앙을 지도했다. 그는 민족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 1910년 망명길을 떠나 중국, 러시아 등을 거쳐 1911년에 미국에 도착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1912년에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고, 다음해에 부설 클래어몬트 학생양성소도 창립한다. 그리고 1913년에는 기독교의 의식을 본받아서 홍사단을 창립한다. 3.1 운동이 발발하자 도산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모금한 6,000달러를 가지고 상해로 간다.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파역을 맡았고, 조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 주일 예배 참석하려고 노력했음을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던 1932년 4월 29일 체포되어 1935년까지 약 4년간 옥고를 치르고 1935년에 출옥했다. 그 후 고향에 가서 기양교회, 평양 남산현 교회 등에서 설교를 했다. 다시 1937년에 '동우회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병보석으로 나와서 1938년에 60세로 서거했다

광수는 도산의 믿음이 예수를 훌륭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에 불과하다고 하지만,<sup>30)</sup> 이만열(2007, 136, 164)은 “평양 보통문안 교회”의 <그리스도신문>을 인용하며 분명히 도산의 신앙을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신앙이었으며, 도산 안창호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라고 주장했다.<sup>31)</sup> 도산은 중요한 일을 당하면 기도를 올리고, 흥사단 문답도 기도로 했으며, 기도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32)</sup>

백범 김구(1876-1949)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으며, 학교를 세웠다. 그는 1903년쯤에 예수교로 입교한 이후 적극적으로 성경공부와 전도활동을 했다(이만열, 112-13). 그리고 을사조약 철폐운동에 실패하자, 민족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사업에 전념하여, 1906년에 장연에 광진학교를 세웠다.<sup>33)</sup>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과 조선 선각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현재에도 한국의 사립학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중이 매우 높다. <표 5>는 OECD 국가들의 국·공립, 사립학교 비율(2003)을 초, 중,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 고등학교의 경우 월등하게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다. 2003년 기준으로 중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비중이 OECD 평균 11.4%인데 반해 한국은 20.6%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이 15.5%인데 반해 한국은 51.8%이다.<sup>34)</sup>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이렇게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 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역군을 키우는데 기독교 학교들이 크게 기여했다.

표 5 OECD 국가별 국·공립, 사립학교 비율 (2003)

단위 : %

구분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중학교)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정부의존	독립적사립		정부의존	독립적사립		정부의존	독립적사립

(이만열, 140).

30) 이광수, <도산 안창호>, <도산 안창호 전집> 제12권, 384-85. 이만열, 163에서 재인용.

31) 참고. 최기영, “도산 안창호의 기독교 신앙.” <도산사상연구> 제5집, 도산사상연구회, 1998.

32) 전영택, “안도산 선생,” <크리스천> 1961. 3. 11일자; <도산 안창호 전집> 제13권, 431-32.

33) 그는 음주는 별로 즐기진 않았지만, 흡연은 아주 심했기 때문에 오해와 비난을 받았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입원까지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금연을 강조했다. 그는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는 내세 위주의 신앙은 아니었다. 도산의 제자 전영택 목사는 도산이 교회를 세우고 일심으로 전도를 하고 친히 설교를 했다고 강조한다.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하였으며 ‘우리 2천만 동포가 모두 손에 신약 전서를 한 권씩을 가지는 날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외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후 3.1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망명해서 70세에 귀국하기까지 27년간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임시정부의 수반을 역임했는데, 이 시절에 기독교적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백범은 귀국 후에도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정동교회 예배에도 참석하였고 교회에서 설교도 자주했고, 그의 연설문에도 부활주일, 하나님의 나라 등 기독교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다(이만열 130).

34)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정부 의존형인 이유는 공립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립 학교를 세우는 대신 사립학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대신 사립학교들로부터 학생 및 교과목 선택권 등을 넘겨받았다. 그리하여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소유권만 정부에 있지 않을 뿐 가르치는 내용은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되었다.

		사립			사립			사립	
한 국	98.7	0	1.3	79.4	20.6	0	48.2	51.8	0
일 본	99.1	0	0.9	94.0	0	6.0	69.8	0	30.2
호 주	71.7	28.3	0	65.7	34.3	0	73.3	26.7	0
프랑스	85.4	14.3	0.2	78.8	21.0	0.2	69.5	29.7	0.8
독 일	97.3	2.7	0	92.9	7.1	0	92.5	7.5	0
오스트리아	95.6	4.4	0	92.3	7.7	0	90	10	0
벨기에	45.4	54.6	0	43.2	56.8	0	42.1	57.9	0
체 코	98.9	1.1	0	98.2	1.8	0	87.4	12.6	0
핀란드	98.8	1.2	0	95.8	4.2	0	89.6	10.4	0
그리스	92.4	0	7.6	94.5	0	5.5	93.7	0	6.3
이탈리아	93.2	0	6.8	96.6	0	3.4	93.9	0.7	5.4
룩셈부르크	93.2	0.7	6.1	79.3	13.1	7.6	84.1	8.2	7.7
포르투갈	89.5	0	10.5	88.7	0	11.3	81.8	0	18.2
스위스	96.3	1.3	2.4	93.0	2.5	4.5	93.1	3.2	3.7
터 키	98.5	0	1.5	0	0	0	98.3	0	1.7
영 국	95.1	0	4.9	93.2	0.4	6.4	26.9	70.4	2.7
미 국	89.2	0	10.8	90.8	0	9.2	90.9	0	9.1
국가평균	89.5	8.2	2.4	85.9	11.4	2.7	79.0	15.5	4.6

OECD에서는 학교 예산의 50이상을정부로부터지원받을경우정부의존형사립으로규정함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일제 강점기 기독교의 역할

인적자본은 교육에 의해서만 고취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자본을 증대시키는 데는 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회 문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미신이 타파되고, 합리주의가 확산되며,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남녀차별이 철폐되는 등 근대적 의식개혁과 사회개혁 역시 인적자본을 높 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기독교 전래 초기부터 선교사들은 사회 개혁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송실대 창립자 선교사 베어 드(W. M. Baird)박사는 “내가 조선인에게 전도함은 영혼의 천당구원을 위함이 아니고 금세에서 민족적 구원을 위함이라”고 했다고 한다(이만열, 2007: 196). 웨일스 부흥운동으로 1905년 술주 정쟁이는 60%나 감소했고, 죄수는 40%가 줄어들었는데,<sup>35)</sup>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에 이러한 “절 제 및 사회개혁” 원칙으로 주일성수, 금주,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자녀 판매, 노름과 마작, 금주, 노예소유 금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sup>36)</sup>

35) J. Edwin Orr, *Evangelical Awakenings in India*(New Delhi: Masihi Sahitya Sanstha Christian Literature Institute, 1970), 56.; 박용규(2007: 513)에서 재인용.

36) 1. 주일 성수. 2. 음주. ①의료 선교사들이 치료의 수단으로 처방을 내린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교 인이라도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②어떤 교인도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③모든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 사할 것을 권한다. 3. 결혼. ①신자의 불신자와의 결혼은 모든 면에서 삼가야 할 것이다.②기독교인 부모들은

이러한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인해 1903년부터 “사회개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절제운동도 사회개혁운동과 연계해서 추진되었다(박용규, 2007: 514). 또한 기독교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남녀평등 사상이 확대되고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첩을 거느리거나 조혼을 금했고, 부모에 의한 정략결혼도 금했다.<sup>37)</sup>

예일 대학의 교회사가 라토렛은 <혁명시대의 기독교(Christianity in a Revolutionary Age)>에서 한국에 복음이 전래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변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한국에서도] 1914년까지 지역 내에서는와 마찬가지로 지역 밖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역 내에서는 도덕과 종교적 관습, 육체적 안정, 교육,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지역 밖으로는 기독교가 영향력 있는 혁명 시대의 특징들인 서양 의학과 교육 방법을 소개하는 도움을 주었다. 또 기독교는 개신교도들 가운데 일본 통치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민족주의적 염원을 강화시켜 주었다.<sup>38)</sup>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운동에도 역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다. 1907년 6월 24일 헤이그 평화회의에 고종의 밀사로 파견되었다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순국한 이준열사도 기독교인 이었다.<sup>39)</sup> 기독교인구의 비중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1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박희도, 이승훈 등 기독교인이었다.<sup>40)</sup> 독립협회 운동을 벌였던 서재필, 윤치호도 기독교인이었으며, 이렇게 양반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되어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관료 중에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인 이무영(궁내부 물품

---

자신들의 딸을 팔아서 안 되며 교회 교인들이 신부를 돈 주고 사서도 안 된다.③18세가 되기 전 남자와 16세 이전 여자의 결혼은 모든 면에서 삼가야 한다. 4. 노름과 마작. 교인들에게 모든 형태의 노름과 마작은 절대적으로 금한다. 5. 흡연. ①교역자의 흡연은 절대적으로 금한다.②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교우의 흡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삼가야 한다. 6. 노예 소유. ①교인은 노예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형태로든 노예제도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②만약 현재 교인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그들을 석방해야 한다.③과부의 인신매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러한 매매에 관여하는 교인들은 권징에 넘겨져 책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금기 사항이 북감리교 선교회 보고서에 명문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03년부터였다(박용규, 2007: 514).

37) 북감리교 선교사 스위러가 맡고 있던 공주에서만 6,000명의 여자들이 교육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박용규, 2007: 515). 로빈스 여선교사가 운영하는 평양의 여학교에만 300명 이상이 등록하였다는 사실이 당시 여성의 변화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1907년 6월 북감리교 연회에 노블이 보고한 대로, 당시 한국의 “부모들이 자기 딸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혁명이었다.” 이와 같은 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복음 앞에서 남녀가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처음부터 선교 현장에서 실천에 옮겨져 온 결과였다(박용규, 2007: 515).

38) Kenneth S. Latourette, *Christianity in a Revolutionary Age: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Vol. III* (Grand Rapids: Zondervan, 1976), 449; 박용규(2007: 538)에서 재인용.

39) 이준은 고향에 아내를 두고 35세에 17세의 신여성을 아내로 얻었다. 이점에 대해서 서구 법학의 초기 수용자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행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취한 것에 대해서 이만열은 기술하고 있다(이만열, 2007: 19). 이만열은 재취할 무렵에 기독교에 입교했을 것이라고 본다(23). 유자후, <이준선생전>(402-404; 이만열, 2007: 33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만국평화회의에서 연설한 후 할복자살 할 때 “하느님 이시어 우리 한국의 독립을 회복케 하여주시며 세계 약소민족을 부흥케 해 주소서”하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만열(2007,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은 할복자살이 화란의 현지에서 확인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40) 연동교회, <연동교회 애국지사 16인 열전>, 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 출판물, 220. 천도교 대표는 손병희, 최린 등 15명, 불교 대표는 백용성과 한용운 등 2명이었다.

사장), 법무 형사국장 및 경무사로 있던 이충구, 죽산군수가 된 김홍수, 면천군수 류제 등이 있었다(이만열, 2007). 개화 지식인들은 상당수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원궁,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이승인, 이승만, 안국선, 김린 등은 독립협회 사건 후 투옥되었다가 개종을 했다. 이승만은 옥중 학교와 옥중 도서관을 운영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민족 구원의 소망을 기독교에서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sup>41)</sup>

이 밖에 임시정부에서 기독교 지도자로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은 김병조 목사, 현순, 손정도 등 감리교 지도자들, 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송병조, 임인전 등 장로교 목사 등이 있었다(이만열, 120). 이 밖에도 3.1운동의 유관순,<sup>42)</sup> 손기정 선수를 길러낸 김교신(金敎臣, 1901-1945),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인 윤동주, 기독교 기업 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한 유일한(柳一韓, 1895-1971) 등이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다.

박용규(2007: 539)는 “한국의 부흥운동이 도덕 수준의 향상, 정상적인 부부 관계의 향상, 근면성, 죄의식의 강화, 여권 신장, 그리고 서양 의학의 도입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개혁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지역적으로 볼 때 특히 서북지역에 일찍부터 ‘자립적인 중산층’이 우세했고, 이들은 새로 수용된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다.<sup>43)</sup> 조선왕조는 평안도 사람들을 차별하였으며, 과거시험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왕조가 망하자 평안도 사람들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고도 한다(이영훈, 2007: 99).

기독교를 통해 개화운동을 할 수 있다고 앞장선 인물들이 조만식, 이승훈, 안창호 등 중산층 계급이다.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3.1운동을 전후하여 사회악에 대한 정화운동을 일으켰다. 기독교인들이 물산장려회를 만들어 국산품 애용운동에 나섰다. 1923년에는 전국적인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했다(195). 고당 조만식은 조선교회가 경제에 더욱 안목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조선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진흥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책을 펴야하고, 복음전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평안남도 대동군 추을미면 이천리의 경우 기독교인이 많은 마을에 술집이 적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복음전도와 지도자 양성은 느린 듯 하지만 진정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인은 생산이 저능하면 서도 소비에는 대담하며 토지와 가옥을 팔아서 소비를 하는 남용과 사치의 악습관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만 기독교인이 단결하여 이를 실행하고, 각처에 이상촌 건설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절약 검소를 실천하여 빈궁조선을 구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sup>44)</sup>

41) 이만열, 2007: 45-48.

42) 유관순은 공주의 영명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공부하다가 14살 때인 1916년 봄 기독교 감리교 충청도 교구 본부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의 주선으로 교비 장학생으로 이화학당에 입학하였다. 이화에는 유관순의 4촌 언니 애더(유예도)가 먼저 다니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관순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중과 새벽에 땅 빈 기도실에 혼자 들어가 기도를 하였고, 일요일에는 가까운 정동교회에 나가서 신앙심과 애국심을 키우기도 했다. 유관순과 부친 유중권, 숙부 유중무, 조인원(독립 운동가이며 정치가인 조병옥 박사의 부친)등을 비롯한 3,000여 군중이 1919년 4월 1일 오후 1시경 만세 운동을 시작하였다. 병천시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태극기를 선두에 세우고 만세를 외치며 헌병 주재소를 향하다가 투옥되어 감옥에서 사망하였다(장종현, 2004).

43) 105인 사건으로 연루되어 고난을 당한 인사들이 대부분 서북지방의 기독교인으로 신민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이만열, 2007).

44) 조만식, “생산과 소비와 우리의 각오 - 1936. 4. 삼천리,” <회상록>, 413-19; 이만열, 200-201.

## 소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인적자본 형성에 교육 및 사회개혁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개혁을 통해서 조선사회에 팽배한 전근대적 가치관과 악습이 타파되고 근검, 절약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도 역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서 기독교가 근대식 교육의 확산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 IV. 신제도학파의 견해와 한국 경제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확대가 분업을 더욱 세분화 시키고, 분업이 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가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는 자본주의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확대가 저절로 시장경제의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시장의 역사가 오래된 이슬람권이나 중국이 근대시대에 시장경제를 창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1993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경제성장과 시장경제의 창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15세기까지 동양에 비해서 낙후되었던 서구가 근대 사회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는 최초로 시장경제를 창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시절에 마르크스 경제학에 심취했으며, 대학원 시절에 U.C. Berkely에서 주류경제학을 배우고, 이어 거래비용 이론 등 신제도학파의 이론들을 경제사에 접목시켜서 신제도주의 경제사학을 창시했으며 그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이후에 각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측에서는 같은 시장경제라도 나라마다 제도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반면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제도는 애매한 개념이며, 제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이렇게 학자들 간에 이견은 존재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경제학계에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제도가 개인의 경제활동의 기회와 유인체계를 결정하는 게임법칙이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근본요인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서구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시장경제제도 창출에 기여한 나라는 제국주의 강국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프랑스가 아니다. 그것은 중세 시대에도 상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베네치아 등 북이탈리아의 작은 공화국들이었다. 이들 나라들은 해양 국가였기 때문에 상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확실한 해운업에 국가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용과 법질서에 기초한 효율적인 제도를 창출하는데 모든 공화국의 역량을 결집하였다. 신대륙이 발견되고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네덜란드가 북이탈리아의 상인들이 개발한 각종 제도를 더욱 발전시켰고, 이것을 영란전쟁을 통해 네덜란드를 제압한 섬나라 영국이 계승하면서 시장경제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절대왕정을 이룩한 스페인과 프랑스 등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결국 프랑스 대혁명 등의 방법으로 봉건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은 독일과 같은 나라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영국의 선진 제도를 자국의 입장에서 수용하여 근대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후 동양에서는 네덜란드로부터 일찍이 서구 문물을 수입한 섬나라 일본이 독일로부터 이러한 시장경제를 배워서 명치유신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시장경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와 홍콩이 제3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1993년에 World Bank는 이들 나라의 성공을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이라고 불렀다.

####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제도 개혁

일반적으로 한국형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수출주도적,’ ‘재벌주도적,’ ‘정부주도적’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출주도적’이라는 말은 국내 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해외에 눈을 돌린 것이므로 시장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전통적인 이론에 부합된다. 재벌이 독점을 하면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는데, 한국은 어떻게 ‘재벌주도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는가? 그리고 정부가 주도적이었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실패했는데,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경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계획경제의 전유물을 도입하여 어떻게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 주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것인가?<sup>45)</sup>

한국의 경제성장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함께 일찍부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채택해도 성공하지 못했는가? “한국과 대만 등 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자본주의적으로 경제성장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남미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에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 2000: 13)는 『자본의 미스터리: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했는가』에서 비서구 국가들이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자본 부족을 지적했다(김승욱, 2009).” 그런데 소토(Soto, 2000)는 제3세계에서 자본이 부족한 이유는 축적된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에 축적하여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자본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약 100여명의 소토 연구팀은 5년 동안 필리핀, 이집트, 아이티, 페루 등 4개국에서 직접 가난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왜 그 자산이 자본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들의 추계에

45) 김승욱 외 3인 (2002),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의하면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부동산의 총 가치는 최소 9조 3천억 달러로 이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폐의 액면가를 합한 액수의 약 2배에 해당하며, 세계 20대 선진국들의 주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의 자산을 합한 총액과 맞먹고, 1989년 이후 10년 동안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 유입된 직접적인 해외투자 총액의 20배를 훨씬 상회하고, 지난 30년 동안 세계은행이 대출한 모든 대출금의 46배에 해당하며, 그 기간 동안 모든 선진국들이 제3세계의 개발을 위해 원조한 총액의 93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했다(Soto, 2000: 36-39). 이렇게 많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으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자산이 불완전한 형태 즉 불법자산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 3세계 국가들의 집, 가게, 회사 등의 자산들은 약 80%가 불법 자산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산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명시화 과정이 없기 때문이며 이것을 바로 '자본의 미스터리'라고 했다(Soto, 2000: 15; 김승욱, 2009).” 예를 들면 필리핀의 경우 개인 소유의 집을 지으려면 168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을 53 군대를 거쳐야한다. 이집트에서는 농지에 지은 주택을 등록하는데 6-1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470 만 명이 불법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에르난도 데 소토 연구팀은 밝히고 있다. 또한 윌리엄 번스타인(408)의 <부의 탄생>에 의하면 페루의 라마에서는 집을 한 채 구매하는데 728가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자본이 부족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제3세계에서 경험하는 경제성장의 실패는 바로 ‘제도 실패’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서 시장경제제도를 창출하는데 성공했는가? 서구에서 시장경제를 창출하는 데는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후발국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각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후발주자의 이익인 학습효과와 이웃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국에 시장경제제도는 한일합방 이후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통해서 이식되었다.

#### 일제 강점기 시대와 제도 개혁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배한 목적은 ‘영구병합’이었다. 그래서 동화주의를 추구했다. 즉 식민지 조선에 일본의 제도를 이식해서 가능한 차이를 줄이고 결국에는 조선을 일본의 일부로 병합시키려고 했다. 물론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였기 때문에 동화주의는 식민지배를 합리화 시키는 구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조선에서 한글을 없애려고 했고,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강제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을 착취해가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강제로 전쟁에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는 등 많은 피해를 주었다. 또한 조선인들이 사회의 상층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교육도 제한을 가하고, 조선의 맥을 끊는다고 산에 말뚝까지 박는 등 각종 민족 감정을 해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조선 왕조의 맥을 끊었다.

그러나 김낙년(2010: 73)은 “경제면에서는 일본의 제도가 거의 그대로 식민지에 이식되어 지역 통합을 이루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6)</sup> 화폐와 시장이 통합되었고, 일

46) 올해는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이다. 전국역사학대회에서는 이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식민주의와 식민 책임”이라는 주제로 제53회 전국역사학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동주제발표회에서 경제사학계를 대표해서 김낙년(2010)은 “식민지 조선 경제의 제도적 유산.”을 발표하였다.



본의 법제도가 조선에 그대로 이식되었다. 1912년의 조선민사령으로 민법이 갖추어졌으며, 이로써 ‘사적 자유의 원칙’이 세워졌다. 신분제가 해체되어 사민평등의 시대가 도래했다. 1909년에 호적을 만들어서 백정에게도 등록이 강제되었다(이영훈, 2007:87). 만주 지배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조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철도를 부설하고, 소유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으며, 일본에서 공업화 과정 중에 부족한 쌀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면서 각종 수리시설을 건설했다. 특히 일제가 병참기지화 전략에 따라 1930년 대 후반부터 추진한 군수공업화로 인해서 북한에 수력발전소 및 비료공장 등 풍부한 물적 유산을 남겼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도 북한에서는 약 800개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가동 중이었다. 북한에 깔린 1인당 철도길이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1인당 발전량도 북한은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이영훈, 2007: 170).

이러한 조치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지만 훗날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 크게 유익을 끼친 것도 많다. 예를 들면 철도가 일제시대에 다 건설되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고속도로만 건설하면 되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도 재정부족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는데, 이때 철도마저 없었더라면 짧은 기간의 압축 성장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이다. 조선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임진왜란을 겪고, 그리고 1623년의 정묘호란과 1636-37년까지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토지대장(양안)이 다 소실되어서 조세를 제대로 거둘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두 차례의 양안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렇게 조세의 원천이 되는 토지대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세금을 거두기 어려웠고, 결국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중앙정부는 힘을 잃게 되었다. 중국의 장개석도 역시 토지조사사업에 실패하였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국내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일본은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선에서 토지조사사업을 벌여서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분리하고, 사유지와 국유지를 구분해서 근대법적 소유권을 확립했다. 역사학계에서는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2001년에 발행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총독부는 전국 농지의 4할이나 많은 토지를 국유지로 수탈해서 이 토지를 일본에서 이주한 일본농민이나 동양척식회사에 헐 값에 불하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이영훈, 2005, 2007).<sup>47)</sup> 경제사학자들이 연구한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1997)>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이후 남은 국유지는 전국의 총 484만 정보 가운데 12.7만 정보에 불과했으며, 그 대부분도 1924년까지 조선인 연고 소작농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되었다.<sup>48)</sup>

이렇게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 토지소유관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일본인 소유의 토지는 미군정에 의해서 신한공사로 이양되었다가 소작인들에게 싼 가격에 판매가 되었고, 일제시대에 형성된 지주제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조치로 인해서 3정도(3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모두 강제로 매각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토지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 데 소토가 조사했던 다른 제3세계와는 달리 ‘자본의 명시화 과정’

47) 토지수탈설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려면 이영훈 (2005), “국사교과서에 그려진 일제의 수탈성과 그 신화성” <시대정신>, 28; 이영훈(2007: 71-79) 참고.

48) 이영훈 외(1977),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것이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였던 토지에 대해서 시장경제의 초석이 되는 근대적 소유권이 확립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평가는 현재 역사학과 경제사학과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식민지수탈론’을 수용하는 반면에 경제사학과에서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수용하는 것이 대세이다.

김낙년(2010)은 일제 강점기를 평가하려면 두 시기로 나누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조선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 하에 있다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시통제체제로 전환된다.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광범위한 통제를 실시하고, 1939년에는 ‘가격통제령’을 내려서 물가 상승에 대처하여 모든 가격을 동결하여, 정부가 가격기구를 대신하였다. 이러한 통제경제의 영향은 1인당 생산에 반영되어 1941년 이후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된다.

김낙년(2010)은 해방 이후에 북한은 식민지시기의 모든 법령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되돌아가지 않은 반면에, 남한은 시장경제로 복귀하였다.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 하 전시통제기 이전에 만들어진 법령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정했으며, 정부수립 이후에 우리의 민법과 사법은 조선민사령의 내용을 일부 개정했을 뿐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당시 조선민사령은 일본이 서구의 근대적 제도를 수용하여 재산권 보호, 계약이나 영업의 자유, 회사제도 등의 근대사회의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은 “중일전쟁 이전의 법체도와 시장경제 체제를 제도적 유산으로 계승하게 되었다(김낙년, 2010: 85).” 일본은 패전 이후에 고도성장기의 경제 시스템을 ‘1940년 체제’라고 부를 정도로 전시경제 시스템을 고도 성장기에 그대로 활용했는데, 한국은 북한은 물론 일본보다도 더 충실하게 해방 후에 시장경제로 복귀했다고 김낙년(1910: 81)은 지적하였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약 140여개의 국가들은 대부분 서구 제국들의 식민지를 경험했다. 그래서 서구의 제도인 자본주의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반면에 한국과 대만은 서구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고, 미국이 해방군으로 진주했기 때문에 미국의 체제인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감이 덜했고, 따라서 이승만의 주도 하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

당시 소련이 급속히 공업화에 성공하고, 동구가 공산화며,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다.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공산주의를 더 바람직한 체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북한보다 남한에 공산주의자가 더 많았다.<sup>4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남한에 진주했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일본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을 북한처럼 국유화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였다(권영훈, 1991: 143).<sup>50)</sup> 1949년

49) 1946년에 미 군정청 여론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본주의를 선호한다는 사람들은 14%에 불과했다. 그리고 1947년 7월에 조선신문기자회 여론조사에서도 정권의 형태는 인민위원회가 가장 선호되었고(71%), 국호는 '조선인민공화국'(70%)이 가장 선호되었다(김승욱,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50) 귀속재산이란 일본인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 1867년 개항 이후 1945년까지 일본인이 축적한 재산을 말하며, 북한에서는 적국의 재산, 즉 적산이라고 불렀다. 이 중에는 공유재산도 있었고 사유재산도 있다. 귀속토지의 경우 남한 총 경지의 12.3%, 기업체 수는 전체 기업의 28% 정도였다. 생산액 비중은 약 35%를 차지하며, 고용기준으로는 40%를 차지 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조용래·김재익·김승욱·유원근, 1994: 212). 이 밖에 주식이나 상점 등의 가치는 1948년 세출예산(351억 원)의 9배 규모(3천 53억여 원)로써, 남북한 전체 국부의 80%를 차지하였다. 북한에서는 1946년 8월 10일에 ‘주요산업 국유화법’을 통해 일본인 자본가나 민족반역자가

12월에 임시관재총국이 설치되고,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서 1950년 5월 귀속재산불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귀속재산의 상당부분이 유실되었지만 1954년 다시 귀속재산 처리업무가 추진되어 정부수립 이후 1958년까지 전체의 90% 이상이 불하되어 한국에서는 사유재산권의 원칙이 확립되었다.<sup>51)</sup>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사상적인 분열 상태에 있었던 남한에서 이데올로기 갈등이 종식되고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게 된 것은 6.25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25 전쟁 중에 세 차례에 걸쳐 진퇴를 거듭하는 동안 공산주의 사상에 우호적이었던 지식인들은 월북했고, 북한에서 탄압을 받았던 600만 명의 지식인, 기독교인들과 지주계급은 월남했다. 월남한 북한 출신의 지식인과 지주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숨 패터가 말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자들로 후에 남한의 상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전용덕 외, 1997: 74). 그리고 민족상잔의 전쟁은 남북한을 사상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켰다. 남한에서 좌파는 빨갱이로 낙인찍혔고, 반공이념이 국시가 되었다. 그리하여 6.25 전쟁이 있기 이전인 정부수립 당시에 제정된 한국헌법에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노동자에 의한 기업이윤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채택했다.<sup>52)</sup> 그러나 6.25전쟁 후인 1954년 개헌에서는 자유기업을 원칙으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6.25 전쟁이 반공이념의 확산과 자유주의 수용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25 전쟁은 전통적인 체면을 중시여기는 등 반자본주의적 가치관을 파괴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전용덕 외, 1997: 23, 40-41).

#### 군사 독재와 압축적 경제성장

한국의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한국적 자본주의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정부주도적 성장’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바로 계획경제의 전유물인 ‘5개년 계획’을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공업화 과정을 시계열로 펼쳐놓고 일본 따라잡기에 나섰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사용하였다.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공단을 조성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을 하였다.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정상화도 하고,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월남전에 파병하고, 중동건설에 뛰어들어 공업화에 필요한 종자돈(seed money)을 마련했다. 부족한 식량과 석유를 구입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주도형 산업 전략으로 바꾸어서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출하는 정책을 세워 수출에 전력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 잦은 북한의 도발과 미군철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하고 중후장대형 산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1972년에는 기업들의 자금압박을 덜

소유한 모든 기업은 국유화시켜, 전체산업의 90%를 차지하던 1,000여개 산업체가 국유화되었다(이대근, 1987).

51) 전용덕 외(1997: 28)는 미군정의 귀속재산의 매각이 남한에서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는 전범(典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52) “制憲憲法을 통해 확인되는 경제체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自由民主主義體制의 闡明이다(제헌헌법 제5조). 둘째, 社會福祉와 政府의 介入을 시사하고 있다.(제헌헌법 제84조). 셋째, 農民의 土地所有와 확립과 농지개혁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제헌헌법 제86조). 넷째로 공영 혹은 국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제헌헌법 제87조). 다섯째, 노동삼권의 원칙과 이익의 분배에 있어 균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제헌헌법 제18조) (이성순·유승민: 1995 372).”

어주기 위해서 8.3조치라는 사채동결을 선언하고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고 관치금융도 불사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차입된 모든 자금을 수출목표 달성에 성공한 기업에게만 몰아주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폈다.

1978년의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정치 갈등이 격화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되고, 새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며, 노동탄압을 강화하였다. 3저 호황이라는 호기를 맞이하여 한국 경제가 마침내 무역수지 면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하에서 민주화 선언이 일어나고, 문민정부가 태어나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실형을 받게 되는 등 경제가 투명해졌다.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진보 측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더욱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요약하면,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시장경제제도가 이식된 이후에 전시통제기를 거치면서 후퇴했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회복되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정부가 자원배분에 깊숙이 개입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정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주장과, 둘째는 정부 주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시각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심 없는 탁월한 리더십과 훌륭한 인적자본이 강조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근본인 차별화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며, 효율적인 제도 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효율적인 제도란 거래비용을 최소화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통해서 수출확대를 위해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 제도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긴밀하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신용장제도 등 각종 수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 창출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 시장경제제도의 수용과 교회의 역할

지금까지 시장경제제도의 수용이 경제성장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경제사학계의 견해를 요약하고, 한국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시장경제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는지 개관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 이식된 시장경제제도는 전시통제기를 거쳐서 후퇴했으나, 해방 이후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다시 시장경제로 복귀했고, 군사정부에 의한 압축성장기에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했지만,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차별화의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므로 한국은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시장경제의 수용과 유지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러한 과정에 어떻게 기여를 했을까?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한 식민지기에는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으로 받아들여져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청년 교육에 앞장을 서 왔다. 또한 해방 직후에 월남한 서북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구고 교회를 세우면서 기업이 정신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발전에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sup>53)</sup> 교회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계몽

53)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희(536-40)는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방향과 일제 강점기의 심령대부

운동을 일으키는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여한 점을 찾기 쉽지만 국가의 제도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시장경제제도가 이식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방 이후에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승만 정부의 각료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정도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6.25전쟁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반공이데올로기에 동참했고, 이것이 반공을 국시로 여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압축성장기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진보적 교단에서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실시하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독재에 항거해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이 곧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기업과 정부의 편에 서는 보수 교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sup>54)</sup> 그리고 분배 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의 물신평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기복적으로 타락했다고 비판했다(이동희 2005).

반면에 보수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사회적 책임을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 감당하고,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압축성장기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노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한국은 초과 노동공급이 보편적인 상황이므로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노동자 보호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는데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그리고 일단 경제를 성장시키고 분배는 그 다음에 하자고 하는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에 동의했다. 특히 월남한 북한 출신이 중심이 된 교회들은 북한 공산당의 반기독교 압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고, 따라서 반공이념을 국시로 하는 군사정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축성장기에 친정부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압축성장의 동반자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제도를 수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 교회가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교회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므로 자유주의 진영을 수용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다.

## 역사해석과 기독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개인의 간증이 가능하다면, 한 나라의 역사적 발전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역사의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역대서와 열왕기서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

---

홍운동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적인 경향을 낳았다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 예를 들면, 경제적 실리에 밝은 초기 선교사들이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자립적 토착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네비우스 선교사의 선교방식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서북지방의 상인으로 대변되는 독립적인 중산층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후에 한국 기독교의 성격을 규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심령 대부홍운동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현실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치환하여 한국교회의 비정치화와 몰역사성을 불러왔으며, 한민족이 시대적 아픔을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희석하게 되는 한계를 지녔다고 주장했다(547).

54)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은 신광은(2009), <메가처치 논박> 참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정국가가 아닌 한국의 국가적 번영을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다. 이스라엘 국가에 적용할 원리는 오늘날 개별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특히 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고, 이 모든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짧은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를 욥에게서 찾는다.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욥기서(1:6-12, 2:1-6)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 나타난 현상적 이유를 보면 욥이 망한 이유는 세 가지로 기술할 것이다. 욥기 1:13-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는 전쟁이다. 스바 사람들의 습격으로 종들이 모두 살해당하고, 소와 나귀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욥 1:13-15, 17절). 이를 역사가가 기록한다면 욥 족장은 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에 패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둘째, 그 원인을 자연 재해와 기근에서 찾을 것이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고, 자녀들이 장남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몰살당했다. 이것은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재해를 당했다고 역사가는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요인은 질병이다. 욥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다시 사단이 욥의 육신을 치도록 했고,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했다. 이것을 역사가가 기록한다면 욥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인구론>의 저자 “멜더스는 영국의 빈곤법(British Poor Laws)에 관한 논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부양에 필요한 식량수요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량을 초과하면 식량 부족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농토 관리가 안 되어 자연재해에 취약해 기근이 오고, 그 결과 영양의 부족으로 질병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인구가 다시 감소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전쟁, 재해, 질병 등 인구증가의 저해요인(Malthusian checks)으로 인하여 인구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Stapleford, 2002: 353)”고 경제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욥기의 내용을 일반 역사가들이 기록을 한다면 멜더스의 3가지 성장 저해 요인과 같이 전쟁, 재해와 질병 등으로 욥이 곤경에 처한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욥의 고난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이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잘 되든 못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는 과거 한국이 어려울 때, 일본 제국주의를 탓하고, 6.25 전쟁을 탓하고, 독재를 탓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제3세계들도 대부분 그들이 못 사는 이유를 이러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다 겪었다. 게다가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GDP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이룩했으며,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예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국이 그러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55)</sup>

55) 일본과 아일랜드가 그런 나라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100년 전에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물리칠 정도였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원망했던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근대사회의 봉건적 잔재를 일소할 수 있었고, 서구의 근대적 제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sup>56)</sup> “대만과 한국의 공통점은 첫째, 둘 다 서방세계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둘째, 공산주의와 전쟁을 함으로써 반공사상이 투철한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빈곤층이 널려있던 중남미를 비롯해서 인도 등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과거 식민종주국이었던 서구국가들의 체제인 시장경제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기 쉽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찬성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sup>57)</sup> 그러나 한국과 대만은 시장경제에 반감이 적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 25 전쟁 기간 중에 마치 쇠가루가 북극과 남극에 모이듯이 공산주의자들과 반공주의자들이 딱 갈라진 사이에 철의 장막이 쳐졌다. 만약 경제개발 초기에 남한 내부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서 압축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6.25 전쟁은 반공과 자유주의라고 하는 남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sup>58)</sup>

마지막으로 독재이다. 많은 나라들이 독재로 인해서 민주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북한도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모든 독재자들이 나라를 망친 것은 아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처럼 나라를 망하게 한 독재도 있지만, 나라를 바로 세워 국부로 칭송받는 독재가도 있다. 싱가포르의 이광호나 대만의 장계석,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마치르가 그러한 독재자들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부류에 속한다. 유신체제 하에서 독재타도를 부르짖었던 많은 청년들이 지금은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고백한다. 또한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고, 역대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그 시대에는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이 못사는 것을 일제 타과 전쟁 타, 독재 타으로 돌리곤 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들이 한국에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수용하게 만들어 오늘날 번영을 이룩하였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sup>59)</sup>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다른 요건들을 제시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 V. 결론

기 때문에 개도국이 아니라고 한다.

56) 물론 수탈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부정한다.

57) “1995년 4월의 비동맹주의를 제창한 ‘반동회의’ 참가국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77개국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들을 제3세계라고 한다. ‘아시아-아프리카회의’(Asian-Africa Conference)가 정식 이름이지만, 보통 개최된 인도네시아 반동의 지명을 따서 ‘반동회의’라고 칭한다. 당초 초청국 5국(버마, 실론,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외에 모두 29개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제국이 참가하여 식민주의와 민족독립문제, 전쟁방지와 평화정착문제, 亞·阿 (A-A)제국간의 우호, 협력문제 등 이른바 ‘반동 10원칙’을 제창하였다 (이대근, 2005: 171).” 이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수용했다.

58) 김일영(2005: 26-27)은 이러한 점에서 김일성이 한국의 국민적 정체성 형성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원인으로 인적자본과 제도를 중시여기는 최근 경제학계의 견해에 따라 한국경제발전의 원인을 교육과 시장경제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제고에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정리를 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시장경제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제 강점기부터 압축성장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술한 후에 이러한 제도 수용에 미친 교회의 역할을 학술적으로는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 치의 틈도 없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기적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라는 주장을 하였다.

####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

한국의 사회발전과 교회의 역할을 마무리 하려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걱정하기 이전에 교회의 쇠퇴를 막는 것을 더 걱정해야 할 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 문제이다.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가에 따라서 한국의 장래는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통일의 방법과 전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둘째는 세계화와 다민족 사회의 문제에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에 농촌인구를 중심으로 점차 다민족 사회화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동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민족을 살리는 애국이 지상과제였지만, 이제는 다른 민족을 포용하고, 세계를 생각하면서 보다 더 넓게 나아가야 할 때이다.

셋째는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신교에서 출산장려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고 한다.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날 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로봇공학의 발달로 <특이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의 예측과 같이 60년 내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없어져서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된다면, 그래서 부자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못해서 죽어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 이는 인류의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이다. 가장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한국의 교육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본 밖에 없는 한국사회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문제는 기독교인의 비중이 18.3%인데, 대학생은 이 비율이 4%에 불과하고, 고등학생은 3.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기독교인의 비중이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 세대 기독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가 직접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설립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 참고문헌

- 김낙년 (2010), “식민지 조선 경제의 제도적 유산,” 『식민주의와 식민책임』, 제53회 전국 역사학대회 발표 논문.
- 김승욱 외 3인 (2002),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 \_\_\_\_\_ (2000), “교회 안에 들어온 자본주의 세계관,” 『목회와 신학』.
- \_\_\_\_\_ (2009), “한국에서의 재물관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앙과 학문』, 12.
- \_\_\_\_\_ (2006), 『유교자본주의와 경제성장』, 『경제논집』 중앙대학교.
- 박용규 (2007), 『평양 대 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개정판, 생명의 말씀사.
-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2006),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 베버 (1982), 『사회경제사』, 조기준(역), 삼성출판사.
- \_\_\_\_\_ (1988),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박성수(역), 문예출판사.
- 복거일·박효종·김승욱·김정호 (2007), 『한국의 자유주의』, 자유기업원.
- 비엘러 앙드레 (1985), 『칼빈의 경제윤리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역), 성광문화사.
- 세계은행(The World Bank) (1993), 『동아시아의 기적: 경제성장과 공공정책(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 신광은 (2009), 『메가처치 논박』, 정연.
- 이만열 (1981),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 \_\_\_\_\_ (1987), “한국기독교사특강,” 성경읽기사.
- \_\_\_\_\_ (1991),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 \_\_\_\_\_ (2009), “한국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서울 YMCA 시민논단 위원회.
- \_\_\_\_\_ (1981),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평민사.
- 이영훈 (2007), 『대한민국 이야기』, 기파랑.
- \_\_\_\_\_ (2005), “국사교과서에 그려진 일제의 수탈성과 그 신화성,” 『시대정신』, 28.
- 이영훈 외 (1977),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 장종현 (2004), 『인물과 신앙』, 백석.
- 토니, R. H. (1983),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이경식(역), 전망사.
- 하웃즈바르트 (1985),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IVP.
- 전용덕·김영용·정기화 (1997),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자유기업센터.